함께 만들어가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대청호 소식

vol.146

2024 겨울

참붕어

Pseudorasbora parva, 잉어과

크기 몸 길이는 약 6~8cm이다.

체색과 무늬 몸 색깔은 은색이며, 등쪽은 암갈색이고 배 쪽은 은백색이다. 몸 가운데에는 진한 갈색의 가로줄 무늬가 있고, 각 비늘 끝에는 초승달 모양의 진한 무늬가 있다.

주요 형질 몸은 길고 약간 납작하다. 주둥이는 뾰족하며 입은 작고 위로 향해있다. 입수염은 없으며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다.

서식지 하천이나 저수지의 깊지 않은 곳, 농수로 등 수면 가까이에서 떼지어 산다.

먹이습성 잡식성으로 부착조류, 수초, 수서곤충 등을 섭식한다.

행동습성 산란기는 4~6월로 작은 돌이나 조개 껍데기 표면에 산란하며, 방정한 수컷은 그 주변을 돌면서 새끼가 깨어날 때까지 산란장을 지킨다. 번식기에 수컷의 몸은 검은색으로 어두워지고, 주둥이 주변에 뾰족한 돌기가 돋는다. 암컷은 노란색을 많이 띤다.

CONTENTS

대청호 소식
2024 겨울 vol.146

04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 89
전선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무주네트워크 팀장

11 실개천과 금강 - 12

17 대청호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 21

23 정책&이슈

27 금강수계 국가보호어류 방류 사업

30 대청호해설사 선진지 견학

33 네트워크 사업보고

37 대청호뉴스&뉴스

39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2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 소식 vol.146

발행일 2024. 12. 13.
발행인 오용준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이용욱
사무처 김재곤, 이용욱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김재곤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 화 (042)930-7340~1
전 송 (042)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하늘북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50
(042)628-2038

표지이야기 : 겨울의 고요 속에서도 대청호는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숨 쉬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대청호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따뜻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대청호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마음이 모인 곳, 대청호와 무주의 따뜻한 동행

전선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무주네트워크 팀장

글_**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무주네트워크의 전선화 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경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 팀장은 2012년부터 무주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대청호 수질 개선과 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그녀가 대청호와 맺어온 특별한 인연, 무주 지역에서의 환경 보호 활동,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들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난 11월경 무주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전선화 팀장과의 대화를 통해 대청호와 지역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무주네트워크의 든든한 환경지킴이

안녕하세요. 저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무주네트워크에서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선화입니다. 2012년에 처음 입사해서 올해로 13년째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무 행정을 총괄하며, 대청호와 무주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시작할 때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지금은 환경운동이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무주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냇가의 추억과 기후변화의 현실

무주는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농촌 환경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농업 활동에서 나오는 폐비닐, 농약 빈 병, 잔류 농약 등이 심각한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에서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자연과 가까이하며 자랐습니다. 봄이면 냇가에서 나물을 씻고 동네 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여름이면 온종일 냇가에서 수영을 하다 해가 질 때까지 놀곤 했습니다. 겨울에는 꽁꽁 언 냇가에서 썰매를 타며 발이 시릴 때까지 뛰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추억들은 제가 환경의 소중

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하는 바탕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무주는 한때 여름이 시원한 지역으로 알려졌지만, 요즘은 열대야 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딧불이를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며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청호를 지키는 주민참여형 활동의 가치

무주네트워크는 대청호의 수질 개선을 목표로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주민참여형 생활개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환경 정화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청호로 직접 오염원이 유입되는 마을을 선정하여, 하천 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하천 정화 작업, 빈농약병 수거, 가시박 제거, 친환경 제품 만들기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투기가 잦은 하천변에는 주민분들과 함께 꽃과 나무를 심어 자연스러운 경관을 조성하는 동시에 불법 투기와 소각 문제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민분들이 환경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분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활용한 환경 캠페인과 사례 중심의 교육은 주민분들이 환경 문제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비점오염원 관리, 물 사랑 교육 등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고, 주민분들께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주민분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마을 이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스스로가 환경 보호 활동의 주체가 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대청호와 그 주변 환경을 보전하는 데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민분들께 환경 보호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주네트워크는 주민분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대청호와의 첫 만남, 환경운동가로 거듭나다

무주네트워크와 대청호와의 첫 만남은 개인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무주네트워크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우연한 기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 두 자녀를 키우던 가정주부였고, 환경문제에 대해 특별히 큰 관심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주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주부 환경 모임과 남대천 생태 알아보기, 친환경 제품 만들기 등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환경 보호 활동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잘 알고 지내던 동생이 개인적인 이유로 네트워크 팀장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가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무주네트워크와의 인연은 단순히 직업을 갖는 차원을 넘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환경 운동이 이제는 제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활동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환경 보호라는 것이 단순히 전문적인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내 울타리 안만 깨끗하면 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고, 쓰레기를 태우거나 무단 투기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마주하면서 저는 환경 보호가 단순히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의 변화로 이어져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가족에게도 이러한 변화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집 앞 드럼

통에서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후, 아버지께 계속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렸고, 1년에 걸친 설득 끝에 결국 드럼통을 치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환경 보호는 단순히 공공의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대청호와의 첫 만남 이후 저는 환경 보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고, 환경운동가로서의 삶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청호와 지역사회를 지키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나부터, 지금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대청호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민 설득에서 우수사례까지, 도전과 성취의 시간

제가 지금까지 무주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경험한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주민분들과 함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입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주민분들을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참여하기를 주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해야 하느냐”는 반응이나, “이런 일을 하면 인건비를 주느냐”는 질문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을은 이장님이 간절히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때로는 저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환경 보호 활동의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방적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 중심의 활동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분들이 직접 마을 하천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화 작업을 계획하게 하거나, 하천에 EM 흙공을 던지는 활동을 통해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무주네트워크의 사업은 점차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환경 보호 활동의 진정한 성공은 주민분들의 의식 변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분들이 환경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무주네트워크의 사례는 여러 환경 단체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강의날 대회에서 무주네트워크의 사업이 발표되었고, 전라북도 도지사상을 포함한 여러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분들과 함께 만들어낸 것이기에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주네트워크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대청호와 그 주변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 보호는 단순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모두가 함께해야만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환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농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 희망

무주네트워크의 앞으로의 활동은 대청호와 무주 지역의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보전하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특히 농촌 마을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예를 들어 생활 쓰레기 관리, 농업 활동으로 인한 수질 오염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분들과 함께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이를 실천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고된 농사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환경 문제를 회피하거나 뒤로 미루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주네트워크는 더욱 체계적이고 친근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주민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서 많이 발생하는 폐농약병이나 비닐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거 캠페인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 단위로 수질 오염원을 줄이는 활동을 주민들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며, 이를 통해 대청호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주민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 자주 접할 기회가 없는 농촌 지역 주민분들께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 하천 오염을 막기 위한 생활 속의 작은 실천 등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주네트워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분들이 환경 보호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마음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될 수 있지만, 이러한 마음이 모이면 대청호와 무주 지역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무주네트워크의 팀장으로서, 그리고 환경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분들과 함께 대청호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대청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청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듯, 대청호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이곳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북천, 갑천, 금강을 향하여

글_**문광연** 개구리 도롱뇽 그리고 뱀 일기 저자

성북천은 수통골의 정상, 금수봉에서 발원하여 진잠동을 지나 방동저수지로 갑니다. 방동저수지에서 호남고속도로 아래를 통과하여 금곡천과 합류합니다. 금곡천은 갑천을 만나 노루벌을 휘돌아 금강으로 내려갑니다.

금수봉을 중심으로 빗물이 북쪽으로 떨어지면 수통골 계곡과 폭포를 지나서 화산천으로 갑니다. 화산천은 진잠천을 만나 갑천으로 들어가 금강을 향해 내려가지요. 그러나 금수봉의 남쪽에 떨어지면 성북천의 발원지가 됩니다.

성북천 발원지 부근의 물길은 작지만 원시림처럼 많은 나무와 풀, 돌, 자갈들이 많습니다. 물의 양은 적지만 맑고 깨끗합니다. 이곳 물에는 옆새우를 비롯하여 많은 수생 무척추동물과 식물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심하여 물의 흐름이 빨라 산소가 잘 녹아 들어가 항상 깨끗합니다.

멀리 보이는 금수봉과 빈계산

성북천 발원지

성북천 상류

한편, 금수봉 옆의 빈계산쪽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빗물들도 작은 물길을 만듭니다. 이 물길들은 대전국립숲체험원 옆을 지나갑니다. 제법 많아진 물길은 금수봉에서 내려온 물길과 만납니다. 이 물길이 모여서 성북천이 됩니다. 많아진 물길은 나무와 돌과 모래를 지나 다시 깨끗해 집니다. 이곳은 다른 실개천과 달리 발원지 부근부터 돌과 자갈이 많습니다. 이곳을 통과한 물길은 산소를 머금고 더 깨끗해 지지요. 물길 옆의 수풀도 울창하여 숲속에는 다양한 식물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살아갑니다. 물까치, 박새, 딱새들이 깨끗한 물을 찾아와 목욕도 하고 목을 추기고 갑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니 물이 고인 곳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에는 배가 빨간 무당개구리들이 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 제법 물이 많아졌습니다. 제방도 보이고 물을 좋아하는 나무들이 물가에 있습니다. 제방 옆에는 논이 많이 보입니다.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지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실개천에 큰 돌로 막아 보를 만들고 이때 고인

대전숲체험원 옆 물길

성북천 상류 물길

물을 이용하여 논농사를 지었습니다. 큰 돌에 모인 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돌 틈 사이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물은 항상 깨끗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돌보가 시멘트로 바뀌었습니다. 시멘트 보는 물의 손실 없이 논농사에 잘 이용할 수 있지만, 실개천의 상류와 하류를 단절시키지요. 하천 생태계에 단절을 가져와 물고기, 개구리 뿐만 아니라 다른 동, 식물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물은 논농사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하천의 동, 식물도 살리는 자연스런 보를 생각해 봅니다.

아래로 내려가니 제방의 한쪽이 직각의 시멘트가 나옵니다. 이런 제방은 물의 유실을 막고 도로를 안전하게 하지만, 다양한 동, 식물의 이동을 차단하여 생태계 단절시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니 하천 옆에 도로가 보입니다. 도로 옆에는 '야생동물주의'라고 씌어 있습니다. 도로 위를 보니 여러 자국이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두꺼비의 사체가 도로 위에 널려 있습니다. 산에서 살던 두꺼비들이 도로를 건너서 저수지 쪽에 알을 낳기 위하여 오다가 차에 치어 '로드킬'을 당한 것이지요. 한두 마리가 아

성북천 제방

동물안전표지판

닙니다. 이런 곳에는 도로 밑으로 두꺼비가 지나갈 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로 옆에는 안전한 유도 울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 큰 저수지가 보입니다. 방동저수지입니다. 방동저수지는 꽤나 큰 저수지입니다. 성북천의 물이 모여 만들어진 저수지이지요. 저수지는 농사용이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변이 모두 개발되어 농사용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전시민들의 쉼터 역할이 더 큽니다. 물은 저수지로 유입되면서 흐름이 약해져 오염이 됩니다. 저수지 가장자리 특히, 상류의 가장자리에는 큰 버드나무 군락이 있습니다. 버드나무의 뿌리와 주변에 살고 있는 물풀들이 정화작용을 하지요. 저수지 주변의 나무와 풀들은 정화작용의 일등공신입니다. 이런 물풀과 나무들이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

요즘 와서 저수지는 관광지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가장자리에 데크가 생기고, 저수지 가운데 분수대도 생겼습니다. 분수대에 물이 올라오니 햇살을 받아 무지개가 만들어집니다. 분수대는 물을 순환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주변에는 카페와 식당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곳은 카누선수들의 연습장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물의 사용이 많아지고, 오염된 물들도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생태계가 조화를 잘 이루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수지를 통과한 물은 수온을 상승시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곳에서 금곡천을 만나 갑천으로 가지요. 갑천은 금강을 만나 서해로 갑니다.

금강의 실개천 성북천!

성북천의 상류처럼 하류도 항상 깨끗하면 좋겠습니다.

방동저수지

방동저수지 데크길

방동저수지 분수대

시민들의 휴식 공간 대청호

글_**여규용** 6기 대청호해설사

가을이 깊어졌다. 오롯이 내려앉은 가을빛을 즐기기 위해 대청호로 향했다. 대청호의 가을은 유난히 시리게 아름답다. 푸른 물결도 그렇지만 호수를 따라 펼쳐진 은빛 억새의 반김이 더욱 포근하다. 올여름 무지막지한 더위를 견디고 대청호반을 지켜온 억새는 그렇게 시민들의 가슴에 추억의 아름다움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대청호는 이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요 힐링 장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요즘 대청호를 찾으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다. 몇 년 전만 해도 즐기고 간 자리가 버려진 쓰레기들로 어수선하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많이 깨끗해 졌음을 보게 된다. 이는 그곳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음을 알게하는 것이다. 그래도 가끔 눈에 뜨이는 쓰레기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기는 하다. 그곳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조심하자는 생각이 전해진 것이 아닐까 한다. 시민들이 특히 많이 찾는 명상정원길과 흥진마을 길은 정말로 잘 보전하여야 할 장소라고 생각한다. 특히 명상 정원길은 처음에는 드라마 촬영지로 이름을 알리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 졌는데 그 이후로도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이곳에서 촬영을 하므로서 그 멋진 풍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기에 그런 곳을 보전하고 찾는 사람들로하여금 그 풍경을 즐겁게 감상하고 쉬어 가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된다. 그렇기에 우리 지역 대청호에 그런 곳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가을이 한창인 10월 중순에는 대청호 해설사 선생님들과 흥진마을 길을 걸었었다. 모처럼 햇살 좋은 가을을 느끼며 걷는 발걸음이 상쾌하다. 김정선생 묘소에 들러 아주 귀한 이야기를 실감 나게 들을 수 있었다. 김정선생 후손께서 그동안 경영해 오던 약국을 접고 그곳에 상주하고 계신다고 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였다고 하시는 말씀에 가슴가득 효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김정선생 묘소 이전에 관한 이야기며 살아온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심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어서 벚꽃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흥진마을 길을 걸어 본다, 다양한 이야기와 가벼운 발걸음이 하루를 행복으로 이끌고 있다.

가을 대청호 아름다운 풍경-명상정원길

김정선생 묘소에서

호수를 건너온 바람은 가을인지 여름인지 모를 따스한 흔적만 남기고 찰랑이는 호수물결과 반짝이는 은빛 억새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듯하다. 삶에서 하루의 시간은 참으로 찰나이다. 그 짧은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 시간을 내가 알뜰하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다

.

지금 우리가 흥진 마을길을 걷는 이 시간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될 것이고 기억속에 남아있으면 그리울 날이 있을 것이다. 잠깐이지만 이렇게 호수를 걷는 하루가 마음속에 남는 것은 그동안 대청호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바라보며 또는 걸으며 안타까워 하고 아쉬워 하고 분노하기도 하며 지내왔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질오염이 염려되었고 이곳 대청호 물은 우리가 먹는 물이기에 그랬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자주 찾았던 명상정원길에 들러 걸어 보았다. 햇살을 물결 위로 눈부시게 내려앉고 호수를 가로질러 온 바람은 얕은 수면 위에 무수한 잔물결을 만들고 있었다. 주차장에는 다양한 차들로 붐비고 호숫가를 걷는 발걸음들은 경쾌하고 가볍게 느껴진다. 내가 사는 가까운 곳에 이런 쉼터가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싶다. 숲을 걷듯 수변 테크길을 걷는 기분은 정말로 상쾌했다.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도 가을이 좋아 나들이 온 사람들도 모두가 밝은 표정들이다. 늘 어두운 곳만 찾아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 보며 노심초사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시민들의 의식을 믿어 보기로 한다. 아직도 마구잡이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아끼는 곳이라는 생각이 차츰 물들어 간다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을 한다. 사람은 내일을 보고 살아야 한다. 지난 일에 너무 매달려 스스로를 구속 한다면 미래는 없다. 그렇게 마음먹고 스스로를 달래 보면서도 지난 시간 공원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모든 개발 이력들이 아직도 내 머리 속에는 아픔으로 남아있으며 그것을 넘어 아쉬움으로 기억되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 인식이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믿어보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고 보는 대청호가 그렇다. 한동안 대청호 상류 쪽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시끌 벅적 하더니 지금은 조용하고 또 대청호에 유람선 띄운다고 소란스럽더니 지금은 조용하기만 하다. 하는 건지 마는건지 아님 포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다. 호수 저 깊은 물 속에 잠겨 있다가 어느 날 물귀신처럼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물을 잊지는 말자. 물이 오염되면 모든 것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는 말자.

명상정원길 아름다운 풍경

명상정원길 완성된 데크길 모습

은빛 억새가 아름다운 길을 걸어보고

흥진마을길 은빛 물억새

대청호를 중심으로 물 환경에 관한 일이라면 나는 누구보다 앞장을 선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게 보인다면 철저히 배재를 한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 왔기에 어느 것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이제 척 보면 안다.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잇속을 챙기고 환경을 앞세우면서 시기와 질투로 남을 모략하고 참 어른스럽지 못한 일들을 무수히 보아왔으며 경험을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의견이 달라도 서로 손을 잡고 같은 편이되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참 모지리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환경활동가라고 자처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본다. 길지 않은 삶에서 지극히 경멸하게 하는 일들이다. 요즘은 환경과 숲의 경계 지점에서 매일 다양한 연구모임을 하느라 많이 분주하게 시간을 보낸다. 환경을 생각하면 숲이 빠질 수 없고 숲을 생각하면 환경이 먼저 생각난다. 매일 이런 생각으로 과제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토론 한다. 어느것이 먼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이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않된다. 이렇듯 지구상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말로는 환경을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끔 대청호반을 걸어보는 나로서는 어쩌다 눈에 뜨이는 풍경을 마주하면 가슴 벅차게 기쁨이 밀려들곤 한다. 얼마전 가을이 막 시작되고 한참 지난 무렵 들렀던 대청호는 그동안 아쉽게 생각했던 테크길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런대로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나를 반겨주었다. 공사를 해야 하나 하는 못마땅함에도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 마음속으로만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치고 정리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이대로 만이라도 지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둘러보았다. 명상정원길 근처에 부분적으로 심어 놓은 꽃무릇의 예쁜 모습도 좋았고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시민들의 얼굴에서도 즐거움이 묻어나는 모습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한 내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다. 심어 놓은 꽃무릇이 더 멋지게 번지고 시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잘 가꾸고 지켜가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풍경 좋은 길로 가는 길에는 제발 데크를 깔지 말기를 소망해 본다. 어느 날 느닷없이 또 공사가 벌어지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 마음이 초조해진다. 어느 것이나 지켜가기는 어렵지만 망가트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지금도 동구쪽으로 가다가 보면 길가로 데크길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있다. 사실 그곳은 누가 보아도 데크길로 할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만한 곳에 데크를 깔고 있으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 지자체에 돈이 많은 건지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 할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도 나는 아이들 교육을 가면 하는 말이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만 제일 문제되는 것은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자기합리화로 제일 많이 환경을 망가트

흥진마을길 풍경

리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

버려지고 망가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야 늘 같은 것이지만 시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화해야 하는 거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보전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기에 어차피 만들어지고 이용하게 된 시설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환경을 지켜가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환경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주변을 돌아보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진 시설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곳을 보고 즐기는 만큼 소중하게 사용하자는 말이다. 그렇게 하는 길이야 말로 우리가 해야 할 대청호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한다. 아름다운 대청호를 가까이하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더 대청호를 이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하천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준설

글_**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국장

대전에는 대전 도심을 가로지는 3대하천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흐르고 있다. 하천의 영향으로 대전은 비옥한 땅이 많이 있었고 농사도 잘 되는 지역이기에 '한밭'이라는 지명으로 불렸었다. 즉, 대전은 하천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이기에 하천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렇다면 하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천은 '강과 시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기록되어 있다. 금강도 하천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흐르는 물도 하천이다. 하천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같은 것이다. 그러나 하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하천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한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다. 관리주체가 중앙부처면 국가하천,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하천, 기초단체면 소하천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구분되어 있는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도 구분되어 있을까?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 똑같다. 관리하고 제어가 가능한 대상, 이수와 치수가 가능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하천 물길을 보나 댐으로 막아 저수지나 호수를 만들어 농업용수, 공업용수, 식수를 공급한다는 것, 하천에 제방에 쌓고 둔치를 만들고 준설을 하면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천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방법으로 하천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수리수문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산업화 이후 지역별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확장되면서 하천의 이수와 치수의 방법도 발전되었고 관리와 제어의 방식도 고도화되었다. 하천 제방의 높이가 홍수량에 맞춰 5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로 점점 높아져 갔고 하천 내에는 유속 제어와 유량을 관리하기 위해 보를 만들었고 보로 인해 하천에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하천 바닥의 돌과 모래를 긁어 퍼내는 준설을 수시로 했다.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 좌안과 우안에 둔치를 만들고 그 공간에 각종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만들었다. 하천이라는 자연적인 공간에 인위적인 시설물이 대폭으로 증가했고 하천의 모습은 제방에 의해 'S'에서 'I'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천 바닥은 수심이 편차가 있었지만 준설로 평탄화됐다.

그렇다면 고도화된 수리수문으로 인한 현재 하천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천 곳곳에 있는 하천횡단구조물로 인해 물길이 막혀 하천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부영양화(인과 질소 같은 양양분이 과잉 공급되어 식물과 조류가 과도하게 번식 후 하천의 용존산소량을 감소시켜 수생물을 죽게 하는 것)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천이 자연적 기능인 침식으로 부서진 것들이 퇴적되어 쌓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천의 흐름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하천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동일선상으로 녹조현상이 있다. 녹조 역시 하천이 흐르지 않는 곳에 장기간 햇빛을 받아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녹조의 주 요인인 남조류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다. 녹조가 위험한 것은 그 물속에 살고 있는 수산물이나 녹조 물로 자란 농작물을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축적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녹조가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했을 때도 축적이 된다는 부산대학교의 연구결과가 있었다. 녹조의 독성은 청산가리 100배 이상이고 100℃ 끓는 물에도 살고 알츠하이머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하천은 인위적인 시설물로 인해 망가지고 있고 오히려 위협이 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왜 하천을 망가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전시는 2024년 5월부터 3대하천에 대대적인 준설을 시작했다. 환경부에서 국비로 42억원을 지원받아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란 사업으로 2023년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 전에 긴급하게 진행하기 위해 서다. 그러면 2023년에 홍수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시 홍수빈도와 강우 패턴 등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대전시는 2023년 홍수 피해 발생 후 그 어떠한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도 계획도 없다가 환경부에서 재해예방 사업비 42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사업비 전액을 준설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후 시민사회를 찾아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의견을 주세오"라고 물었다. 시민사회는 "준설은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다, 전주천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의견을 냈지만 국비 사업이기에 무조건 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준설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과 하천 횡단구조물에 대한 분석과 진단 후 철거에 대한 논의는 비용과 시간을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하천관리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1]을 적용하자는 제안과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 십년전부터 대전시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비용과 시간이 없다'였다. 수 십년동안 대전시 하천과는 무엇을 한 것인가? 봄이면 둔치 제초작업하고 여름이면 준설하고

1)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 :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관리 및 복원해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다양성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얻는 것. (제8차 세계물포럼'2018년 세계 물 개발 보고서'주제 발표)

가을이면 수해복구하고 겨울이면 차년도 하천 시설물 설치 사업 및 예산계획 만들고 이것이 전부다.

결국 대전시는 3대하천에 중장비를 투입하여 하천 바닥을 긁어냈다. 장마 전까지 준설은 대부분 완료했다. 장마가 시작됐고 3대하천에서 홍수 피해가 속출했다. 갑천의 만년교, 원촌교, 갑천대교, 안영교 등 대전시 주요 다리가 통제되었고 유등천의 유등교 교각이 침하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말할 것도 없이 3대하천의 모든 둔치는 잠겨 뻘이 두껍게 쌓였고 둔치의 각종 시설물은 훼손됐고 물살에 쓸려 내려갔다. 그렇다면 2023년보다 비가 더 많이 내려 피해가 발생한 것인가? 2023년과 2024년 장마 시기 누적 강수량을 비교해 봤다. '기상청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을 통해 2023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대전시 누적 강수량은 745.4mm이었고 강수일은 18일이었다. 2024년 동일 기간의 대전시 누적 강수량은 447.2mm이고 강수일은 14일이다. 작년 강수량에 비해 298.2mm나 적게 내렸고 강수일도 4일 적었다. 그리고 홍수빈도로 계획된 200년 빈도에 비해 10~30년밖에 되지 않는 적은 양이다. 계획홍수량의 경우 3,281m^3/s고, 실제는 1242.80m^3/s로 설계빈도의 약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23년보다 적은 강수량과 강수일, 홍수빈도와 계획홍수량의 수치가 절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과 비슷한 홍수 피해를 받은 것은

하천 준설은 홍수를 예방하는 방안이 아니다.

2024년 홍수 피해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갑천의 지류의 매노천이 있는 기성동의 수해이다. 매노천이 범람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매노천의 경우 농업용수 취수를 위한 보가 10m당 1개씩 설치되어 있다.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횡단구조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시간에 강우가 집중될 때 불어난 하천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막힌다면 넘칠 수밖에 없다. 즉, 하천 횡단구조물이 홍수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마 이후 명확하게 드러났다. 준설했던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구간에서 재퇴적됐다. 준설한 양과 버금갈 정도로 고스란히 다시 쌓였다. 갑천 만년교 구간은 모래와 자갈이 퇴적되어 수백미터에 달하는 모래톱이 만들어졌고 대전천 현암교의 경우 준설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쌓였고 유등천 사정교 역시 마찬가지다. 준설한 곳은 준설과 상관없이 언제든 퇴적되는 하천 지형인 것이다. 대전의 3대하천은 깍이는 지형과 쌓이는 지형, 흐르는 지형이 모두 균형을 이루며 수 천년동안 하상을 유지해 온 하천이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을 평형하상이라고 하는데, 하천은 준설 여부와 관계없이 침식과 퇴적에 의해 평형하상이 유지된다. 이런 평형하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름아닌 하천의 횡단구조물(보, 낙차공, 돌 징검다리 등)이다. 3대하천에는 총 61개의 횡단구조물이 존재 한다. 여기에 교각까지 감안하면 퇴적과 홍수위 상승을 유발하는 시설물은 훨씬 많다. 준설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수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는 행위이다.

그러면 대전시는 홍수 피해 복구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요구했던 도시의 물순환시스템을 점검하고 하천횡단구조물을 진단하고 용도 및 기능를 상실한 구조물 철거계획을 만드어야 한다. 즉, 하천을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대전시는 11월 13일 [국가하천 재해예방(2차)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긴급으로 냈다. 입찰 기초금액은 갑천 426,680,000원, 유등천 135,100,000원, 대전천 135,100,000원이고 입찰기간은 11월 15일(금)부터 11월 19일(화)까지 개찰은 11월 19일(화)이었다. 약 7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단 5일간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다. 대전시는 준설이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를 수가 없다. 그런데도 오로지 준설이 답이라고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금강수계 생명잇기를 위한 국가보호어류 방류 사업

글_**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총무부장

지난 2021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에서 금강수계 멸종위기종 복원 생명잇기 협약식과 꾸구리 방류하는 것으로 시작된 금강수계 생명잇기를 위한 국가보호어류 방류 사업이 2024년 11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약 3년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국가유산청 그리고 우리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협약하고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인철 교수님 연구팀에서 약 3년간 진행해온 사업인데요. 금강수계 생명잇기를 위한 국가보호어류 방류사업의 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강수계 생명잇기를 위한 국가보호어류 방류사업 배경은 최근 국가보호 어류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멸종이 가속화되어 멸종위기종 개체군 복원 및 보강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인 금강수계 멸종위기어류 정밀 모니터링 결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중장기 복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민·관 합동 「금강수계 국가보호어류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강수계 국가보호어류 복원사업은 기존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의 한계점을 분석·보완하여 정량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는데요. 생존률 향상을 위해서 치어가 아닌 준성어로 성장한 개체를 방류했고 방류한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 효과검증 및 보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국가보호어류 방류는 1차년도에는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에 꾸구리 1,000개체, 세종시 미호강과 부여·청양군 지천에 미호종개 4,000개체를 방류하고 2차년도에는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에 꾸구리 1,000개체, 세종시 미호강과 부여·청양군 지천에 미호종개 3,000개체,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금강에 어름치 1,000개체를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인 2024년에는 세종시 미호강과 부여·청양군 지천에 미호종개 3,000개체,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금강에 어름치 2,000개체를 방류했습니다.

금강수계 국가보호어류 복원사업을 통해 방류한 꾸구리, 미호종개, 어름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꾸구리는 한강과 금강수계에서만 사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하천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여 있어 환경부 멸종위가 야생 동·식물 II급에 속한 어류입니다. 미호종개는 미호강, 유규천, 갑천, 지천 등 금강수계에서만 서식하는 미꾸리과 어류로 유속이 완만하고 수심이 얕고 모래가 잘 발달된 바닥의 모래속에 몸을 완전히 파묻고 생활합니다. 천연기념물 제 454호이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I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름치는 금강, 한강, 임진강, 예성강에만 분포하는 한반도 고유종으로 낙동강은 기존에 없었으나 안동댐 상류에 이입되어 드물게 발견되는 잉어과, 모래무지과 어류입니다. 하천 중상류의 유속이 완만하고 자갈이 깔려 있으며, 물이 맑고 수심이 비교적 깊은 곳에서 생활합니다. 천연기념물 제 259호로 지정되었고 멸종위기야생 동·식물 II급에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금강수계 국가보호어류 복원사업으로 방류행사를 하는 동안 지역에 있는 미래세대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림 그리기대회 등도 개최하여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국가유산청,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함께 관심 두고 참여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동안 방류한 꾸구리, 미호종개, 어름치 생존 확률이 다른 지역 방류 사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방류한 어류들이 금강에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국가유산청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그리고 방류한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좋은 수질을 유지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야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대청호를 사랑하는 많은 지역 주민들 또한 수질 개선을 위해 우리 대청호운동본부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과제를 함께 수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동의 자연과 역사를 만나다

글_**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예술과 자연의 조화, 예끼마을과 선성수상길

안동댐 건설로 새롭게 조성된 예끼마을과 선성수상길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돋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예끼마을에 들어서자, 한옥을 개조한 근민당 갤러리와 갤러리 예(藝)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민당 갤러리는 지역 주민들과 작가들이 협력하여 전통과 현대 예술을 결합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예는 과거 우체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예술적 감각을 더한 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설치된 독창적인 예술 작품들도 예끼마을만의 특별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이어 방문한 선성수상길은 길이 1km, 폭 2.75m로 물 위를 걷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는 테크로드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과거 안동댐 건설로 인해 사라진 예안마을 주민들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대청호 해설사로서 이곳에서 느낀 자연과 역사의 조화는 대청호의 스토리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문객들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평화로운 물길, 낙강물길공원과 낙강 세계물포럼 센터

낙강물길공원은 "한국의 지베르니"라 불리며, 안동댐 수력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공원으로 평화로운 풍경과 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연못과 나무들, 그리고 벤치가 어우러진 이 공원은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선사했습니다. 공원 한쪽에 설치된 수차는 과거 안동댐 수력발전소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유산으로,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어 방문한 낙강 세계물포럼 센터는 물과 생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2,552㎡ 규모의 기념센터에는 물과 관련된 교육 공간과 치유의 정원이 마련되어 있었고, 대규모 수목원과 수차원이 조화를 이루며 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곳에서 경험한 물과 자연의 조화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대청호의 환경 보전 메시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숨결, 임청각과 법흥사지칠층전탑

임청각은 독립운동가 이상룡 선생의 생가로, 조선시대의 전통 가옥이 주는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515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철길이 관통하며 일부 훼손되었지만, 현재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청각은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교육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며 대청호에도 지역사와 연계된 환경 해설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흥사지칠층전탑은 통일신라 시대에 건립된 전탑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벽돌탑 중 하나입니다. 국보 제16호로 지정된 이 탑은 7층 구조와 높이 17m로 웅장함을 자랑하며, 통일신라의 건축 기술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증명합니

다. 현재 일부 훼손된 상태지만, 지속적인 보존 노력을 통해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대청호와 관련된 역사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연과 전통의 조화, 봉정사와 월영교

봉정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극락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봉정사는 전통 불교 문화와 건축미를 대표하는 유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극락전 외에도 다양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봉정사에서의 탐방은 대청호 해설사로서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해설에 반영할 수 있는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견학의 마지막 일정은 월영교였습니다. 길이 387m, 폭 3.6m로 국내에서 가장 긴 목조 다리로, 안동댐과 낙동강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명소입니다. 다리 중간에 위치한 정자는 잠시 쉬며 풍경을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월영교를 걸으며 자연과 전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고, 대청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단순히 장소를 방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청호 해설사로서의 전문성과 시야를 넓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안동의 자연과 역사를 체험하며,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끼마을에서의 전통과 현대 예술의 조화, 선성수상길의 물길 위를 걷는 체험, 낙강물길공원의 평화로움, 세계물포럼 센터의 물 보전 메시지, 그리고 임청각과 법흥사 지칠층전탑에서의 역사적 의미까지, 모든 경험이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대청호를 중심으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지역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견학에서 얻은 배움과 감동을 바탕으로, 대청호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 활동을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동네트워크

색소폰 선율에 담긴 환경 보전의 메시지

글_**이미나** 영동네트워크 팀장

영동네트워크에서는 오랫동안 찾아가는 환경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늘 바쁜 일상에 쫓겨 지내는 주민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레인보우 색소폰 동아리와 회원들이 함께 마을을 찾아 갑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간중간 색소폰 연주도 하고 마을분들의 장끼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심천면 초강리마을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가구수도 많은 마을이기도 하지만 100여 명이 넘을 듯한 주민들의 참여도가 돋보였고 단합 또한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 보내고도 마찰때는 못내 아쉬워 하는 마을이였기에 감사했고 따뜻한 대접에 또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두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느껴집니다. 남은시간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보은 네트워크

환경사랑에 노력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맑은하천만들기

글_**육예화** 보은네트워크 팀장

보은네트워크에서는 매년 회원마을, 회원단체, 하천감시단이 모여서 맑은하천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활동으로 3곳의 회원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성족천, 보청천 정화활동을 진행하였고요. 하반기활동으로 회원단체인 환경연합보은지부 회원분들과 하천감시단분들이 모여서 장마때 떠내

려와 쓰레기들이 많이 모인 항건천주변 정화활동을 8월6일에 진행하였습니다.

한여름 상당히 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관심이 많으며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환경연합회원분들과 하천감시단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화활동에 동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대청호 수질 보전과 환경보호에 노력하는 보은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대전 네트워크

신촌동 쓰레기 없는 마을만들기

글_유지현 대전네트워크 팀장

대전네트워크에서는 신촌동 회원마을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매월 1회씩 환경교육 및 친환경생활용품 만들기와 마을정화활동, 마을환경개선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했습니다.

9월에는 친환경세탁세제만들기, 10월 조물조물 친환경비누만들기, 11월 EM주방세제만들기, 그리고 10월 29일과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마을에 인접한 대청호 정화활동 및 초화류모종식재 활동 등 마을환경개선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벌개미취와 비비추를 식재했는데요. 내년에 마을에서 반갑게 마주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옥천 네트워크

대청호수중 정화활동

글_오희진 옥천네트워크 팀장

옥천네트워크(대표 유태식)의 활동 중 "대청호수중 정화활동"는 대청호수난구조대 주관으로 장마철 쓰레레기 수거를 진행한다. 올해 총2회 진행함. 군북면 일대 수거를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대청호수난구조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히 진행이 되었다.

대청호로 유입된 장마철 쓰레기 작업을 하여 대청호의 맑고 깨끗한 수질이 보전되어 깨끗한 대청호 및 상수원 수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1차는 9월13일에 군북면 용호로 산40-1 주변과 2차는 10월29일 군북면 용호리 산62 주변까지 깨끗하게 정비했다. 맑고 깨끗한 대청호 지킴이를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대청호수난구조대"이다.

금산 네트워크

금산네트워크 화이팅!!

글_김청자 금산네트워크 팀장

2024년 하반기 금산트워크는 주관단체인 정심회 회원들 중심으로 금강 강변과 천내습지 등을 뒤덮고 있는 가시박 제거 작업을 했다.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 때문에 이른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작업 장소로 모이는 수고를 했다. 땀 범벅이 되면서 수고하고 애쓴 만큼 생태교란종인 가시박에 사라지고 아름다운 우리나리 식물이 번성하기를 기대 한다.

금산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태환경탐사 팀의 활동도 열심히 하였다

생태환경탐사팀은 환경 캠페인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자연보호협회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금산군 관내 곳곳을 깨끗하게 정화운동을 하였다.

천안아산 네트워크

시민과 함께 그린(GREEN) 물 공동체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글_**이상호** 천안아산네트워크 팀장

병천천 소유역 시민과 함께 물 공동체로 하나 되는 '시민과 함께 그린(GREEN) 물 공동체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사업의 목표는 소유역 물환경교육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대청호 ~ 병천천 살리기 시민운동 확산, 시민·수계주민 대상 물사랑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네트워크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지켜나갈 병천천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 사업 진행 현황은 계획 대비 평균 9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물사랑 시민양성 교육 및 캠페인, 물사랑 실천 환경교육, 네트워크 참여단위 운영회의 등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천안아산네트워크는 2025년 진행될 사업도 빈틈없이 계획하고 추진하여 지역주민, 기업, 시민단체, 학교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물 공동체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사업이 차질 없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청주 네트워크

청주네트워크에는 이런 일이~

글_**박종순** 천안아산네트워크 팀장

바쁜 가을 수확철이만 그래도 환경교육을 안할수 없겠지요?

10월, 11월 바쁜와중에도 대청호 청주네트워크 마을별 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노현1리와 2리, 괴곡리, 구룡리, 묘암리, 마동리 6개 마을의 환경교육이 완료되었습니다.

노천소각문제와 쓰레기 투기 문제를 넘어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교육으로 확장되는 의미있는 교육이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 "지역민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적 관광구조 만들어야"

대청호 규제 개선을 염원하는 충청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환경 전문가들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선순환적 관광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선으로 유입되는 외지인이 아닌 오롯이 실거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강구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국장은 "최근 대청호의 자연경관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며 대청호를 찾는 관광객과 함께 외지 사람들이 불법 운영하는 대형카페, 음식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규제가 있는 지금도 만연하게 발생하는 불법 행위들이 규제 개선 이후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청호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카페나 식당을 보면 외지인 명의로 된 매장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또 매장을 불법 증축하고 공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불법 행위뿐 아니라 도로 주변에 상호와 위치를 알리는 광고물까지 게재하는 상황이다.

김 국장은 "초반에 허가받을 때만 주민 명의를 빌려 운영하다가 이후 명의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매장들이 생기는 구조"라며 "실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지역민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은 오히려 대형카페나 음식점에 밀려 문을 닫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면 외지에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와 통로를 더 확장하는 꼴"이라며 "상수원보호 구역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개선의 목소리를 내는 만큼, 단속과 처벌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발의 측면에 앞서 대청호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근수 배재대학교 호텔항공경영학과 교수는 " 최근 국내외에서는 지역의 환경, 문화 등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생하는 형태의 지속 가능한 관광이 트렌드"라며 "대청호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만큼 개발 위주의 관광보다 지속 가능한 관광 철학을 갖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반 시설이나 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리하게 인프라를 늘리다 보면 쓰레기나 소음문제, 환경오염 등 지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며 오히려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 도시에서 벗어나 대청호가 가진 자연환경을 즐기며 일주일, 이주일 관광을 하는 체류형 관광형태로 관광 프레임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2024년 11월 17일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1년여 분쟁 마무리…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 재추진

친환경 도선 건조와 주 계류장 입지 선정 등의 행정 소송 문제로 추진이 지연돼 왔던 도선 운항이 재개될 전망이다.

공약사업인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은 대청호 생태관광지역 내 친환경전기도선 도입 및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제공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추진됐다.

6일 옥천군에 따르면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운항 선박 건조·구매 우선 협상 대상을 두고 벌인 민사 소송 2심(고등법원) 재판에서 패소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0월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운항 선박 건조·구매 입찰 공고를 냈다. 이 공고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으로 A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해 12월 이 선정 업체를 자격미달 업체로 분류했다. A업체 측은 이에 불복해 '협상 대상자 지위를 보장해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군은 이 사안에 대해 사업 추진 중단 장기화 등을 이유로 대법원 항고를 않기로 했다. 군은 A 업체와 이행 절차 등의 협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달 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친환경 수상 교통망 관리사무소 입지 선정 문제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애초 계획했던 옥천읍 수북리 안터교 일원에 주 계류장 건립을 계획했다. 이후 대청호 안터교 일대가 갈수기 때 수심이 낮아 친환경 도선이 정박하기에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내면 장계관광지 일원에 주 계류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변경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와 관련한 승인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 중에 회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를 지난해 8월 4억 3100만 원을 들여 착수한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2022년 5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

지역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 차원에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 운항을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군이 구상한 운항 구간은 안내면 장계리~동이면 석탄리~안남면 연주리를 잇는 21㎞ 뱃길이다.

오는 2025년까지 대청호 일원에 계류장 8곳과 부대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도선 2척을 띄울 예정이었다.

그러나 친환경 도선 건조와 관리사무소 입지 선정 등에 차질을 빚으며 애초 추진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애초 사업 계획 추진과 예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이라며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 100%로 인미 기확보된 110억 원(도선 50억, 선착장 60억 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추측되며 이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2024년 11월 6일 기사

서화천 유역에서 민관이 함께 대청결운동 실시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이사장 오용준, 한밭대 총장)는 사회적협동조합 금강(이사장 정종관)과 공동 주최로 지난 11월 15일부터 서화천 유역에서 민관합동 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 서화천은 금강의 1지류로 서화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이 옥천군 군북면 대청호의 녹조 발생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면서 서화천 유역의 오염원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사회적협동조합 금강은 옥천군 군서면 서화천변에서 정화활동을 계획해 옥천군 주민 및 사회적협동조합 금강 조합원 6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여름 긴 장마로 떠내려오고 하천변 수풀에 걸려 방치된 약 10톤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출처: 중도일보 2024년 11월 17일 임병안 기자 기사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소식

천안녹색소비자연대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24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 환경 협약으로 꼽히는 중요한 이벤트이지만 정작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조용해도 너무 조용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시민사회 연대체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의 회원으로서 부산에 모였습니다.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소비자 행동 포럼'과 캠페인을 통해 기업과 정부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행사이지만 뉴스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협약은 12월 1일에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국제협약 #플뿌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연대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신청 기자회견 (11.20)

"친일재산 환수! 국가가 안하니 시민이 한다"

충북과 강원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749명의 시민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閔泳徽. 1852~1935)와 최연국(崔演國, 1886~1951) 이 소유한 친일재산환수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법무부에 민영휘와 최연국 후손이 소유한 토지와 매각대금 42억여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신청서를 접수하며 환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일 오전 10시 40분 광복회충북도지부와 민주노총, 충북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와 최연국이 후손에게 물려준 충북·강원·경남 소재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일재산 국가귀속업무 맡은 법무부, 2011년 이후 환수실적 전무

친일재산국가귀속법에 따라 구성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다.

이 기간 친일파 168명이 후손에게 증여한 2359필지, 1113만9645㎡, 공시지가 2기준 959억원, 시가 2106원의 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명박정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한 차례 활동기간을 4년 더 연장할수 있었지만, 2010년 활동을 연장하지 않고 종결시켰다.

그 뒤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됐다. 친일재산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됐지만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일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법무부가 친일재산을 찾아내 환수한 친일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북과 강원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법무부가 친일재산을 환수 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해선 전담기구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부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필요성이 제기된 대해 이강일 국회의원은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친일재산 조사위원회를 부활시키겠다"며 "친일재산 환수가 곧 친일청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준비한 법률개정안과 관련 오는

2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친일재산 환수가 제대로 될 때까지 2차, 3차 계속해 귀속신청 할 것"

국가귀속신청을 한 이들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이번 귀속신청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귀속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는 지난 14년 동안 친일재산 단 한 건도 스스로의 힘으로 찾지 못했다.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할 때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이름으로 2차, 3차, 4차 귀속신청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귀속신청 대상 토지는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가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기자는 2018년 충북지역 친일잔재에 대한 탐사를 시작한 이래 6년 가까이 관련 취재를 계속하고 있다.

김 기자는 "현재까지 친일파가 후손에게 물려준 140여 필지, 공시지가 730여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해 정리해 놓았다"며 "잠깐 잠깐 틈나는 대로 찾아놓은 것이 이정도 인데 국가가 나서 제대로 조사하면 환수대상이 될 친일재산은 어마어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기후재난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의 과제 토론회 개최

지난 26일, 민주노총대전본부와 함께 <기후재난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의 과제> 토론회를 열고 지역 건설, 배달업 노동자들의 현실과 기후위기에 안전한 노동을 위해 무엇을 함께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서주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를 통해 폭염, 한파 등 기후적 요소에 머무른 기후대응의 현실, 작업중지권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해 노동자들이 어떻게 주체로 나설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석호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대전지회 사무장은 한국사회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배달노동자들이며, 고립되고 외로운 현재의 상황과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조례까지 존재하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현실을 짚어주었습니다.

강민영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사무국장은 현재 건설현장은 폭염노동으로 죽거나, 실업으로 굶어 죽거나 둘 중 하나인 상황이라며 폭염 및 한파 시 노동 가이드라인 법제화와 작업중지 시 임금보전 등 실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임술 민주노총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은 기후재난을 지금의 노동운동 과제 어디에 붙여놔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의 현장통제 능력과 정치적 변화, 공공성 강화 등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투쟁들이 다각화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대전광역시 기후변화적응대책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여성, 노인, 어린이 등만을 취약계층으로 설정하고 지역의 다양한 기후취약계층을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오늘 이야기한 노동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후재난이 심각해지는 현시대에 지역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연대와 연결이 절실함을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을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조례와 정책 등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부분들을 찾고 바꿔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산군

안창선 자연보호중앙연맹금산군협의회 전임회장, 환경부장관 유공 표창 수상

안창선 자연보호중앙연맹금산군협의회 전임회장, 환경부장관 유공 표창 수상

금산군 자연환경 위해 새집 달아주기, 야생 조류 먹이 공급 등 활동 추진

안창선 자연보호중앙연맹금산군협의회 전임회장이 지난 4일 전북도 군산시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제46회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식에서 자연환경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안창선 전임회장은 금산군 자연환경을 위해 새집 달아주기, 야생 조류먹이 공급, 자연보호전국대회 참석, 홍보물 현수막 제작 등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안 전임회장은 "앞으로도 금산군 자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영동군

영동읍 새마을협의회, 영동천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화

충북 영동군 영동읍 새마을협의회(회장 고선규·부녀회장 박미용)는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8일 4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영동천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화를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특히 9일부터 시작되는 제55회 영동난계국악축제를 앞두고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원들은 예초기 등을 동원해 영동천 제방의 풀베기 작업을 진행하고 제방 풀뽑기 및 하천변 일대에 방치된 폐비닐과 플라스틱병 등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고선규 회장·박미용 부녀회장은 "앞으로도 영동군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동읍 새마을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옥천군 면담 결과보고'

2024년 8월 27일(화) 오후 3시 옥천군수 사무실에서 '모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옥천군 주민 제안 정책 요청서에 대한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옥천순환경제공동체는 지역단체와 주민과 함께 2023년부터 두 차례 '주민참여정책학교 운영'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옥천군이 '2025년부터 3대 도입을 시작으로 2033년까지 모두 도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대전충남생명의숲

주원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주민참여 사례탐방

지난 11월 21일에는 미호동넷제로공판장으로 주원천 인근 지역주민들과 주민참여 사례탐방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미호동넷제로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전환해유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해유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거버넌스활동사례를 들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참여자의 점심식사는 채식메뉴, 미호동사과로 만든 사과카레와 채식스파게티로 먹었구요.

미호동넷제로공판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미호동을 에너지전환의 마을로 만드는 과정, 에너지자립과 기후위기를 위해 함께 하고 있는 활동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들을 이야기로 들어보니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 시간에는 태양광랜턴만들기 체험을 했는데요. 작게나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 집에서 잘 사용하자며 열심히 만드셨어요.

태양광랜턴으로 전기절약 실천~

미호동마을탐방도 계획했었는데, 추운날씨로 아쉽지만 다음기회로 미뤘구요. 내년에 좋은 계절에 미호동을 다시 한번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탄소중립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로. 약속~~~했구요. 에너지 전환 해유

~~~~

~~~~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설천면 길산리 상길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사)정심회
(사)정심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 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고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수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성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중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천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신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문의면 상장2리,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발팩리, 백두대단보전시민연대,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노현2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사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위례마을살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천안시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

< 친환경농산물 농민 직거래 장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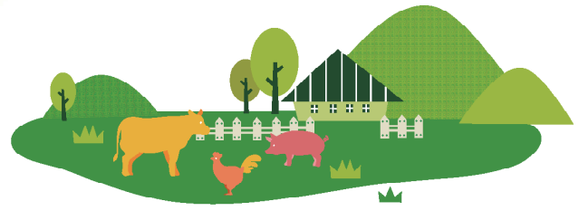
매주 수요일은
대청호 농산물 직거래 '생생장터' !

얼굴 있는 생산자와 지혜로운 소비자의 만남!
대청호주변 소규모 농가의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직거래 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대청호 농산물을
만나는 '생생장터'입니다.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1층으로 오세요!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2시
장소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1층

<금강보호캠페인> 가축분뇨 적정관리 요령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



- 빗물이 축사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수로, 방지턱을 설치합니다.
- 가축분뇨나 퇴비가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시설, 퇴비사 시설, 도랑을 설치합니다.
- 가축분뇨를 초지나 경작지에 뿌릴 때는 작물의 흡수가 최대가 되는 시기에 우기를 피하여 살포합니다.
- 바뀐 가축분뇨법을 꼭 읽고 숙지합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소식지 수요조사 안내

안녕하세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회원 여러분!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는 앞으로도 더 나은 소식지 발간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소식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쉽게 이동하셔서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306180]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화 042)930-7340, 1 | 전송 042)930-7342 |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 이메일dch2004@naver.com